



발행.제작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 참가경험자 동창회 사무국

발행일 2015년12월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 참가경험자 동창회홍보지No.2

はじめに・ 처음으로・序言

「JaCKbook」のページを開いてくださったみなさん、こんにちは。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参加経験者同窓会事務局です。今回お送りしたこの広報誌は、8月17日～23日に東京・新潟で行われた、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参加経験者交流会で、日中韓3カ国のメンバーが作成しました。

この広報誌を開いた皆さん、小学生の時に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に参加してから、何年が経ったでしょうか。今でも、あの時に仲良くなり、一緒に世界でたったひとつの絵本を作り上げた友達とつながっているでしょうか。

次のページからは、今回開かれた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と参加経験者交流会の様子や、参加経験者へのインタビュー、そして現在発足している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参加経験者同窓会事務局について載せています。この広報誌をきっかけに、小学生のころ、この事業に参加した思い出を振り返り、当時友達になつた子たちともっと繋がりたい、日中韓についてちょっとでも考えてみよう、そう思ってもらえば幸いです。

打开“JaCKbook”网页的各位朋友：你们好！这里是日中韩儿童童话交流活动以往参加学生同窗会事务局。本次会刊是由参加8月17日至23日在东京、新泻县举办的日中韩儿童童话交流以往参加学生交流会中的日中韩三国成员编制的。

翻开这本会刊的各位朋友，你们从小学时代就参加过这个日中韩儿童童话交流活动，至今已过去了多少个岁月了？那时，你们结交了许多小伙伴，并在一起共同绘制了世界上独一无二的连环画绘本，现在，你们与这些朋友还有联系吗？

从下一页起，刊载了本次日中韩儿童童话交流活动和以往参加学生交流会的情况，受访的以往参加学生的感想，并介绍了现在成立的日中韩儿童童话交流活动以往参加学生同窗会事务局的简况。各位如果能以这本会刊为契机，回顾小学时代参加这个活动时的美好回忆，勾起要进一步联系当时的那些小伙伴们的情思，并想思考一些日中韩之间的关系，这将使我们感到十分的欣慰。

[JaCKbook]페이지로 방문하여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중한 어린이동화교류 참가경험자 동창회 사무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는 이홍보는 8월 17일~23일까지 토고와 니이가따에서 열린 일중한 어린이동화교류 참가경험자교류회에서 일중한 3개국의 회원들이 작성하였습니다.

이홍보지를 열어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시절에 일중한 동화교류에 참가한 이후 몇년정도가 흘렀을까요? 지금도 그때당시에 친해지고 함께 세계에서 단하나뿐인 그림책을 만들어내었던 친구들과 연락이 되고있을까요? 다음페이지에는 이번에 열렸던 일중한어린이 동화교류와 참가경험자 교류회의 모습과 참가경험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현재 발족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중한 어린이동화교류 참가경험자동창회 사무국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홍보지를 기회로 초등학교시절에 이사업에 참가하였던 추억들을 되돌아보고 당시에 친구가 되었던 친구들과 더욱 가깝게 사귀고싶고, 일중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목차

처음으로.....	1
참가경험자의 프로그램①.....	2
참가경험자의 프로그램②.....	3
초등학생의 프로그램.....	4
We grew up!	5
Before and After.....	6
인터뷰.....	7
2020년을 향하여.....	8
동창회사무국에 관하여.....	9
포토앨범①.....	10
포토앨범②.....	11
사무관련 수속에 관하여.....	12
알림(광고 전단지)	13

참가경험자의 프로그램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 참가경험자교류회는 대학연령이 된 교류회의 참가경험자를 소집하여 추억을 나눔과 함께 미래로 연결되는 3개국의 교류프랜을 생각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써 201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 일중한 어린이동화교류사업이 시작된 이래 참가자 경험자는 현재 약 1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참가경험자교류회는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토교올림픽센타와 니이가따현의 에찌고유자와에서 열렸습니다. 금년도의 테마는 [미노리; 결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참가경험자교류회 중에서 쌓아왔던 것을 받아들여 지금 우리 자신들이 가능한 일들은 무엇인가? 참가경험자 22명(일본 10명, 한국 8명, 중국 4명)이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8/17	올림픽센타에 참가자 전원집합	도착을 하자 방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렸던 그림책의 원본이! 자신이 그렸던 그림과 수년 만에 재회! 함께 그림책을 그렸던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설레는 모습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시는 주체자 여러분들도 교대로 자기소개를 해가며 이날은 각자의 방으로...
8/18	히라따 오리자선생님의 강연 [협동과 창조의 힌트]	강연회를 통하여 우리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안고도 어떻게 교류를 할까? 실제로 세계 각지에서 연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점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교류회에서 나온 생각들을 공유한 결과 이번 교류회가 끝나는 날, 3년 후, 5년 후의 미래를 구상하였다. 자신은 어떤 상태로 변해 있을까? 이번에 만난 친구들은? 참가경험자교류회는 어떨 게 변해 있을까? 더욱 이 자기의 나라와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에 관하여 자유롭게 꿈을 발표하였다.
	미래교류 워크숍① [생각해내자!] 밤에는 결단식과 환영만찬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교류회에 긴장감이 도는 모습이다. 환영만찬 회에서는 코니시끼씨의 컨서트로 초등학생들에게 지지 않으려 우쭐대는 모습들도....
8/19	토교에서 니이가따로 이동	오구타다미호수의 견학을 통하여 더욱 서로의 친근감이 깊어진 가운데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밤에는 지역 내의 전통 예술 북연주와 반주의 감상과 우주비행사 아끼야마 선생님의 강연 [우주와 농업~결실 이란 무엇인가~]를 듣다.
8/20	수학체험과 바베큐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시간의 워크숍에 대비하여 초등학생들과 함께 야채 수확의 체험과 바베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미래교류 워크숍② [확인하자!]	일본인 참가경험자 동창회가 금년에 발족을 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 또한 조직으로써 미숙하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활동에 참고가 된다면 하는 생각도 갖으며 진행하였다. 각국에서 수행하여 주신 선생님들께도 들려드릴 기회가 만들어졌다. 다음에 어떠한 교류를 할 것인지에 관한 설정에 관한 구상을 서로 그룹으로 갈라져 생각하고 발표를 하였다. 그 의견들을 기본으로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들을 개인적으로 내놓았다. 그 결과 [조직 만들기][홍보][기획]의 3개의 반으로 갈라져 활동을 시작하였다.

8/21	미래교류 워크숍③ [미래를 그리자!] 미래교류 워크숍④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다음날에 해야 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그자료들을 각반에 나누어서 제작. 통역원들의 도움을 받아 세부적인 의사 확인과 내용의 번역들을 실행. 점차적으로 영어와 각자가 습득한 언어로 직접 생각들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8/22	알프의 마을 [미래교류플랜] 프레젠테이션 반성회	케이블카를 타고 기분전환. 젤라드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동물들과의 만남, 선물들을 사는 등 즐거움을 만끽... 일주일간의 성과를 보고 해야 하기에 주최자의 이도 타다히 고선생님을 비롯하여 수행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프레젠테이션, 긴장 속이었으나 우리들이 그리는 교류 플랜을 들어주시고 더욱 찬동하여주시기까지 하여 커다란 자신감과 달성감을 얻을 수가 있었다. 즐거웠던 시간들은 순간적이었다. 밤에 시작된 반성회에서는 다가오는 헤어짐에 대한 설렘과의 눈물들 까지도 보였다. 자신들의 생각을 그린 미래를 실현하기, 그것은 즉, 재회를 의미한다. 그날을 기대하며 일주일간의 활동의 막을 내렸다.
8/23	초등학생 참가자들을 향한 프레젠테이션 해산식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던 우정을 단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생각들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 일주일간 그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들을 하여왔던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또한, 교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만든 자료도 참가자들 전원에게 전할 수가 있었기에 꼭, 지금부터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초등학생 시절과 똑같이 [오늘은 안녕 사요나라]를 불러 헤어짐의 시간을 갖았다. 나라별로 갈라져서 각각의 버스를 탄 우리들에게는 미소가 지어졌다. 재회를 맹세한 일이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 강연을 하여주신 강사선생님들

히라따 오리자선생님(극작가, 연출가)(참가경험자)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연극가로 극단 [청년단]의 리더.

[현대구어 연극] [로보트 연극] 등의 새로운 도전, 연극을 교육에 살려 워크숍, 한국, 중국, 프랑스 등 해외와의 협동공연에 의욕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16세 때에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꿈꾸며 26개국을 주파. 한국 연세대학에 유학 경험이 있음. 저서로는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무엇일까?] 등.

아끼야마 선생님(저널리스트, 우주비행사)

TBS(토쿄 방송)에서 워싱턴 국제ニュース 센터장을 역임. 1990년 소련 우주선 소유즈에 탑승하여 일본인으로써는 처음으로 우주로. 1995년에 TBS를 퇴사하고 농업 일에 몸을 담고 있음. 현재 교도조형예술대학 교수로써 농작업의 지도를 비롯하여 메디어론, 국제정세론을 강의. 저서로 [팽이와 우주선] 등이 있음.

초등학생의 프로그램

초등 학생들도 예년과 같이 일본, 중국, 한국으로부터 각각 33명씩 모여 계99명의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가 열렸습니다.

긴장감과 함께 모였다가 눈물과 함께, 헤어짐을 아쉬워 하기까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8/17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타에 참가자 전원 집합 환영 인사와 참가자소개후에 반별로활동
8/18	[일본 , 중국 , 한국 의 옛날 이 야기집] 의 읽고듣기시간 국립국회도서관 국제어린이 도서관 견학 결단식, 환영만찬회
8/19	나이가따로 이동을하여 오꾸타다미호수 견학 호텔에 도착한 후 전통 예술의 감상과 아끼야마선생의 강연
8/20	수확체험 쌀겨 저장가마 체험후 바베큐 [에찌고쓰마 아리산 현대미술관]과 [화로와 타지마그림책과 나무열매의 미술관]을 견학
8/21	드디어 그림책만들기에 돌입 밤에는 비밀장기자랑대회!
8/22	그림책을 재봉 케이블카로 알프마을 산책 사요나라 석식회후에 그림책 발표회
8/23	해산식



잠깐쉼터.....

JaCKbook에 관하여

이 흥보지의 이름은 [JaCKbook]이라고 합니다. 표지에도 그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이 [JaCKbook]은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사실은 [Japan,China,Korea]의 머리문자로 [JaCK]로 구성하였습니다.

즉,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의 흥보지라는 것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또한 [작과 콩나무]에서처럼 이야기 속에서 뿌려진 씨앗이 하늘에 달을 수 있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일중한 3개국에서 만들어낸 이 [JaCKbook]가 씨앗이 되어 점점 성장을 하여 일중한의 우호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염원도 담겨져 있습니다.

We grew up !

**日中韓子ども童話交流2005
結団式**

Past in 2005

올림픽 기념 청소년 종합센터에서 함께 모여 2005년 일중한아동동화교류가 개최되었고, 결단식을 시작으로 토쿄에 위치한 국제어린이도서관을 견학하며 동화교류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공연관람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시즈오카현으로 이동하여 국립중앙청년의 집, 청년의 집을 탐험한 후, 직접 친구들과 함께 카레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후지산에 있는 얼음동굴 등 후지산 주변 투어를 하고, 5일째 날에는 본격적으로 그림책 만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룹으로 나누어 모두 이야기를 생각하고 한명이 한장, 동화책을 그렸습니다. 다음 날 까지 동화책을 완성하고, 일본초등학교와의 교류회와 후지 사파리 파크의 견학, 작별저녁식사회를 하고 동화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헤어지는 날, 1주일의 시간을 정리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각자의 나라로 돌아 갔습니다.

Present in 2015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15년.
우리는 토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0년이라는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직접 그린 동화책을 마주하니 언어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주제인 '결실'을 맺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연극가 히라타 오리자 선생님의 강의로 부터 우리는 문화차이속에서 서로와의 소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3일에 걸친 토론과 회의를 하는 동안 동화교류의 필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문회 조직, 홍보활동, 대외교류 등의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차이를 조율해 나가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결실을 생각하며 한발 앞을 그리고 있습니다.

Before and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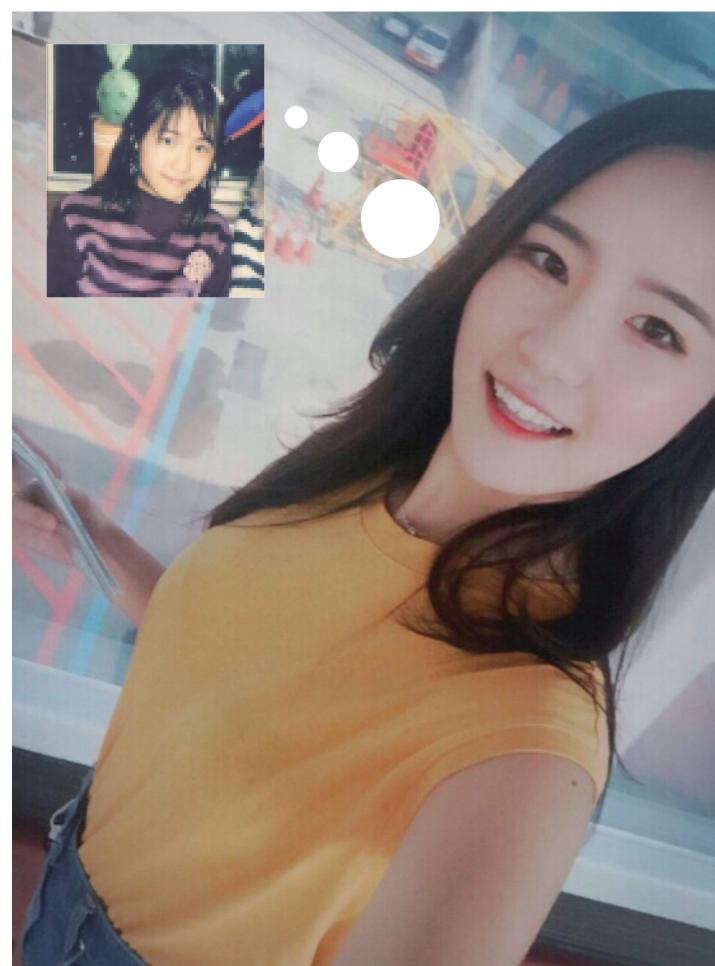
김재윤 (Kim Jae Yun)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어중국언어문화를 전공하고 있는 김재윤입니다. 저는 2005년 일중한 동화교류회를 통하여 중국, 일본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움으로서 동아시아를 향한 눈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동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중국에 더욱 관심이 생겨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중국 문화도 좀 더 알게 되었고, 같고닦은 중국어 실력으로 2015년 제 3회 OB참가자교류회에서 좀 더 중국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사용하여 발표도 하고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친구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통역도 해주게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통하여 다른 나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찼고, 가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자라서 이러한 역할을 하게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와같이 제 인생에 가슴뛰는 적성을 발견해주고 저를 성장시켜준 한중일 아동동화교류는 제 인생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자영 (Byun Ja Yeong)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국립충남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재학중인 변자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일본사람과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일중한 아동동화교류에 참가하여 일본, 중국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동화책을 만들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른 나라 친구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지만 서로의 언어를 잘 몰라 친해지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일본어를 배워 일본친구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제 3 회 OB참가자교류회에서 일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들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고 보다 많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류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중일 친구들이 서로 지금의 관계를 이어나가 삼국이 상호간에 우호관계를 유지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2015년 8월 오래동안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10년만에 만났습니다. 2005년 처음으로 일본에서 만나 10년 후 만난 일중한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AYU

Q. 지금 소감은 어떤가요?

A: 되게 기쁩니다. 설마 만날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았을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것 같았다.

Q. 왜 여기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나요?

A: 평소에 무엇인가를 하는것을 좋아한다. 중국과 한국 일본에 대해 잘 몰랐으나 알아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Q. 2005년과 2015년의 친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2005년에는 저보다 어른스럽게 느꼈다.

그럼도 잘그리고 얘기도 잘들어줬었다.

2015년 만난 지홍은 저를 기억해주어 기뻤다. 저는 추억을 자세히 기억 못했지만 지홍은 제가 게임을 알려줬고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던걸 자세히 기억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Tian Mowei

Q. 지금 소감은 어떤가요?

A: 오기전에는 흥분되었다. 오고나서는 10년전 친구들을 만나 기쁘다. 예를 들어 이지홍, mayu, Aki 등.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할꺼라 생각하였지만 만나게 된건 신의 도움이라 생각한다. 이번 경험은 매우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Q. 왜 여기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나요?

A: 다시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이문화를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Q. 2005년과 2015년의 친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10년전에 지홍은 키가 컸습니다. 3명의 한국 여자중 지홍만 기억합니다. 현재도 키가 여전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의때 생각하지 못한 자세한것을 생각해 내어 충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을 주었을때 친구들을 데려와 고마운 성의를 표현하여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홍

Q. 지금 소감은 어떤가요?

A: 감회가 남다릅니다. 같은조에 5명이 다시만난것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마유를 보았을때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마유한테 물었을때 마유도 알아봤다고 합니다.

Q. 왜 여기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나요?

A: 일본에 다시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옛추억을 쫓아 떠나왔습니다.

Q. 2005년과 2015년의 친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나라에서 보내주어 10년전에는 온것이어서 솔직히 귀국후 지속적인 교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서 만난 느낌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2020년을 향하여



워크숍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교류를 더욱 깊게 하고픈 생각이 같다는 것을 알아 차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구축하여 나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또한 강연회와 평상시의 생활을 통해 각각 어 떠한 교류를 해 나가고 싶은 가라는 구체적인 안도 떠올리기 시작하고 날이 갈수록 풍부한 의견교환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그리는 워크숍에서는 어학의 습득과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을 모두가 관전한다는 등, 과 같은 꿈을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나누는 중에 우리들은 모두, 초등학교 시절 이후의 관계가 끊긴 것에 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선은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에게 같은 후회의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미래의 교류를 그리는 중에 자연적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개국의 참가경험자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완료되고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3개국에서 실제로 만나 협의 가능한 기회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지만 이번 교류회에서 공유된 서로의 생각을 자국으로 갖고 가서 각각이 목표로 한 미래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동창회사무국에 관하여

이번 참가경험자교류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창회 사무국 설립의 발판을 만들과 동시에 한국, 일본, 중국의 동창회 사무국을 결집한 [총동창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사무국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교류회에 참가한 후에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라도 이 연결을 계속하여 갈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꼭,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창회

앞으로의 검토부문

일본인 참가경험자
동창회 사무국

*설립종료

중국인 참가경험자
동창회 사무국

*앞으로의 기획부분

한국인 참가경험자
동창회 사무국

목적

1. 참가경험자끼리의 연락교류를 쉽게 한다.

3개국이 공통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 만들기

- 이벤트를 개최할 때의 의견교환이 가능한 환경 만들기

참가경험자와 연락이 되는 프랫폼 만들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기반 조성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의 3개국의 참가경험자가 모일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



2.3개국의 사이를 깊이 할 수 있다

*참가경험자의 교류를 기초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나간다.

*교류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3개국의 교류를 홍보할 수 있다.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다.



포토앨범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 참가경험자 교류회

8월 17일~23일
@ 토쿄, 니이가따



사무수속에 관하여 알림과 부탁말씀!

일중한어린이 동화교류회의 공식 홈페이지는 참가경험자가 이용할수있는 게시판이있어 그것을 이용하려면 ID와 PW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들이 이를 분실하고있습니다.

ID와 PW를 잊어버렸을때는[홈페이지]혹은[관계자 직통의 어드레스(bbs@douwa-kids.com)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신분은

주소변경에 관하여 참가경험자 동창회로부터의 부탁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지금부터 교류를 계속 확대시켜나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동화교류사업과 참가경험자 교류회에 관한안내를 우편으로 보내려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소가 초등학교시절하고는 변경이되어 있어 안내문등을 보내드릴수없는 부분이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참가경험자 동창회로써도 참으로 안타까운일로 꼭 여러분들과의 교류를 깊이하기위하여서라도 여러분들 자신들이 주소등의 변경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사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때는[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의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참가경험자 정보등록 품]에 새로운주소의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릴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많은 여러분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기위하여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사업 홈페이지내 [참가경험자 정보등록 품]

http://www.douwa-kids.com/contact_ob/

알림

어카운트를 가동하기시작하여 1년간의 등록자수는 약 100여명이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참가경험자의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보다 많은 회원들과 재회할수 있도록 또한 참가경험자들의 교류의 장으로 될수있기를 기대하며 운영하고있습니다. 계속하여 참가자의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꼭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Facebook과같이 Twitter도 어카운트도 가동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인 참가경험자 동창회사무국의 활동내용과 그림책 릴레이 현황등을 수시로 갱신등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가와 등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창회에 관하여

지금, 일중한어린이 동화교류에 참가한 사람들은 동창회가 만들어져 가고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사무국이 만들어져 있지만 중국과 한국은 준비중입니다.



facebook:

「일중한 어린이
동화교류
참가경험자 동창회」

twitter :
JCK_OB_NET



3.여러분의 참가를 기다립니다!

우리들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 해주세요!

4. 부탁

이사 때 :

일중한 어린이 동화 교류 의 HP 에 개설 된 '참가 경험자 정보 등록 양식'에서 새로운 주소의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ID · Password 를 잊어 버린 경우 :

bbs@douwa-kids.com 에 참가 연도 , 이름 을 알려주세요.